

自然과 어울려 숨쉬는 佛像들

「慶州 南山」의 출간에 붙여

윤경렬

경주 郷土史硏究家

경주 남산은 이름 그대로 경주 남쪽에 자리 잡고 솟은 산이다. 경주는 신라 서울의 옛터다. 옛날 신라 서울에는 17만8천936호나 되는 기와집들이 추녀를 이어 즐비하였고, 별을 뿌린듯 절이 많았으며, 기러기 줄지어가듯 탑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는 사방으로 산과 산들이 둘러막아 천연 要塞을 이룬 서울이었다. 둘러막고 솟은 산들 중에서 제일 거대하고 높은 산이 남산이다. 金鷲山이라 불리는 높이 468m의 봉우리와, 높이 494m되는 高位山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계곡을 통합해서 남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磨石山 일부도 포함된다. 산맥에 감싸여 있는 아늑한 곳이나, 배경이 멋진 봉우리나 바위가 있으면 그곳에 절이 있고, 내다보는 전망이 좋은 곳에 반드시 절터가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절터 수는 암자터를 합해 백열 곳도 넘는다. 높은 바위산에는 탑을 세웠는데, 평지가람처럼 가람배치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보기좋은 곳에 멋대로 세웠기에 자유롭고 흥미롭다. 지금까지 발견된 탑터는 63기를 헤아린다. 경치좋은 곳에는 부처를 조성하여 앉혔고, 절벽 바위에는 부처를 돌을새김이나 線刻으로 새겨 배치하였는데, 지금까지 (87년 현재) 발견된 수는 79체가 된다.

끈질기게 이어온 계례신앙

물담는 그릇모양에 따라 물 모양이 변하듯이, 불교문화도 나라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모양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경주 남산의 佛跡에 더욱 질게 나타난다. 우리 신앙의 바탕은 自然이었다. 산을 숭배하였고, 물을 숭배하였고, 하늘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숲을 신앙하였고, 바위를 신앙하였다.

신라 32대 孝昭王은 望德寺를 짓고 몸소 불공을 드렸다. 이때 누추한 옷차림으로 거지중이 나타나서 참석하려 하였다. 왕은 기분이 상했으나 말석에 앉으라 하고 불공이 끝난 다음 중을 불러 물었다.

“비구는 어디 사는가.” “네, 남산 비파암에 삽니다.” “돌아가거든 여러 사람에게 국왕이 올리는 재에 참석했다는 말 하지말라.” “네, 잘 알았습니다. 폐하께서도 돌아가시거든 眞身釋迦(살아있는 부처)를 공양했다는 말씀 하십시오.”

말을 마치니 중의 몸에서 금빛이 나고 머리

뒤에 頭光이 어렸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 남산으로 가버리니 임금 은 당황하여 수 없이 절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진신부처님을 모셔 오라 하였다. 신하들이 비파암에 갔을 때에는 진신부처님이 바위 속에 들어가버리고 그곳에는 지팡이와 바릿대만 놓여 있었다. 효소왕은 할 수 없이 비파암 앞에 釋迦寺를 지어 진신에게 사죄하였고, 사라져 숨은 바위에는 佛無寺를 지어 지팡이와 바릿대를 두 절에 나누어 두었다 한다(三國遺事).

이 이야기에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교훈도 있겠지만,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신앙도 깃들여 있다.

꾸밈새 없는 서민의 얼굴

남산에 새겨진 많은 磨崖佛들은 바위 속에 부처님 靈이 숨어 계시다는 우리 신앙의 불상들이다. 남산의 마애불 중에는 선각으로 새긴 것도 많은데, 대개는 바위면을 다듬지 않고 그냥 새겼다. 부처님이 계신 자연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변경시키리요! 억척만년 풍우에 시달린 바위면에 간략하게 새긴 불상들은 유구한 세월과 무한한 힘이 어울려 신비롭게 우리 눈에 비쳐온다. 자연으로 된 바위면의 소박한 터치, 이기 속에서 피어나는 유연한 색깔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살린 겸손한 우리 예술이다. 또 얼굴은 입체에 가까운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몸체는 바위에 간략한 선각으로 표현된 불상도 있다. 몸체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면 불상은 자연에서 분리되어 조각품이 예배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몸체가 바위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바위 속으로 끌려들어가서 부처님 靈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바위산은 바로 큰 법당으로 變相된 것이다. 경주 남산의 유적들은 인공적인 재주와 과장은 생략하고 절대적으로 자연과의 조화에 생명을 두었던 것이다.

또 신라사람들의 신앙은 특이하였다. 하늘에서 하강하신 부처님(형상이 아님)들은 바위 속에 머물러 계시다가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시는데, 언제나 서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이다. 愾興스님은 神文王(681~691) 때 國師이다. 신문왕은 아버지(文武大王)께서 추천해 주신 스승님이라 하여 아버님 대우로 모셨다. 찬란한 말안장에 화려한 옷을

경치좋은 곳에는 부처를 조성하여 앉혔고, 절벽바위에는 부처를 돌을새김이나 線刻으로 새겼다. 경주 남산의 부처님들은 광선에 따라 표정이 천변만화한다.



남산에 미처 틈만 나면 산속을 헤맨다는 윤경렬씨. 김동희 사진

입혀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말 탄 채로 대궐을 드나들게 하였다. 행렬이 화려했으므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어느날 구경꾼들 중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누추한 차림으로 등에 마른고기가 들어 있는 망태를 메고 있었다. 경흥스님의 종자가 그를 꾸짖었다.

“옷을 보니 중인데 어찌 부정한 물건을 메고 다니는가?” “이거요? 두 다리 사이에 산고기를 끼고 다니는 중도 있는데 시종의 물고기 쪼이아 나쁠 것이 있겠는가” 하고 꺾을 웃으며 남산으로 가버렸다.

경흥스님은 그 종자를 뒤따르게 했다. 거지중은 文殊寺 마당에서 사라졌는데, 지팡이는 문수보살상 앞에 있고 물고기보이던 것은 소나무 꺾였었다. 종자는 돌아와서 경흥스님께 말했다. 스님은 말에서 내려 남산을 향해 정중히 절하고, 지금 문수보살께서 오셔서 내가 말타고 다니는 것을 크게 꾸짖고 가셨다 하시고, 그후부터는 아무리 먼 길에도 다니는 말을 타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으셨다 한다.

부처님이 거지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려운 경문이 아니고 한마디 농담으로 고승 경흥스님을 일깨웠다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신라에 많다. 그 때문에 신라 부처님들은 대개가 서민의 얼굴이다. 특히 남산石佛의 얼굴들은 익살스러운 시골 아저씨 얼굴, 농담이 나올 듯한 표정들이다.

千變萬化하는 부처님

남산의 부처님들은 광선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동남산의 불상들은 아침해에 조명되고 서남산의 불상들은 저녁해에 조명되는데, 동남산 감실불상은 언제나 얼굴이 어둡다. 석굴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짓날

해뜨는 순간에는 그 얼굴에 담백 햇빛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일년에 하루 아침만은 한없이 밝은 표정이다. 냉골 선각 마애불상 중에는 하루종일 육안으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다만 석양 때 저녁해가 바위면을 가로스쳐 비칠 때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루 한 순간만 얼굴을 보여주는 신비한 부처도 있다. 또 이 골짜기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석양에 아름답다. 서쪽하늘이 금빛으로 물들면, 그 노을은 흐르는 강물에 반사되어 보살의 얼굴에 비추게 되어 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금빛으로 물들 때, 얼굴이 불그레 상기되어 고향 극락세계를 바라보며 웃음짓는 보살의 모습은 형언하기 어렵다. 극락세계와 남산을 하나로 묶어 놓은 감격이다.

이렇게 남산의 불적들은 그 아름다움을 활짝 피우는 순간이 있고, 계절이 있고, 때가 있다. 남산에 올랐다고 어찌 남산을 다 봤다 할 수 있을까? 요즘 남산佛跡의 그 순간, 그 계절에 보는 방향을 바로잡아 엮어놓은 책이 나왔다. 姜運求선생의 사진으로 엮은 「慶州 南山」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바른 계절, 바른 시간을 잡기 위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렸을까.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험한 산 등성이를 얼마나 헤맸을까. 수십년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느끼지 못한 남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이 책을 통해 느끼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더구나 金元龍박사나 姜友邦선생의 바르고 고운 글로 해설이 첨부되었으니 錦上添花라 아니할 수 없다. 나라가 선 후 반세기 가깝게 흘러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남산의 신비를 격조있게 뜻깊게 세상에 소개해 준 이 책의 출간에 다시금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